

## 日本 세관의 스마트 세관구상 2020

### I. 서론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세관은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및 「무역 원활화 추진」이라고 하는 일본세관의 3대 사명을 달성하고, 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회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관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는데 지난 30년간(1988년부터 2018년까지) 상황을 비교해보면 무역액은 약 2.8배, 수출입허가 건수는 약 5.5배, 징수액은 약 5.7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 수는 약 13.2배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1988년에는 전혀 없었던 經濟連携協定(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up>1)</sup>이 2018년에는 17번째로 체결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역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대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뀌고, 가 일층 무역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이에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해서 외출 자숙이나 시설사용 제한 등을 요청하였다.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자숙요청 등은 서서히 완화되어 사회 경제활동 수준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다시 감염이 확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상황 등을 계속 감시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거리 확보」 등의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0 동경올림픽·패럴림픽」이, 2025년에는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등 세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세관을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도 국제전자상거래의 가 일층 진전, 사회구조의 변화 등 앞으로도 크게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 상황 속에서 관세국·세관은 세관 업무의 고도화·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가 일층 편리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20년 후 나아가 30년 후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국·세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개선을 생각하며, 미래상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국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계속 세관의 3대 사명을 적절하게 완수함과 동시에 국민의 관점에서 세관 절차 등에서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무역의 건전한 발전」, 「안전한 사회」, 그리고 「풍요한 미래」를 실현하는 「세계 최첨단 세관」을 목표로 하는 세관 행정 중장기 비전 「스마트 세관구상 2020」을 최근 수립하였다. 한편, 이번 스마트 세관구상은 세관 행정 중장기 구상의 제1보이며, 앞으

1) EPA라고 하는 것은 FTA(화물·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추가하여 투자 및 사람의 이동, 양국 간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經濟連携를 도모하는 협정

로도 환경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諸외국세관의 대책도 참고하면서 검토를 계속함과 동시에 필요한 재검토를 해 나간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세관구상 2020」을 수립하게 된 주요 환경변화, 중장기 주요 비전 및 시책 내용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하겠다.

## II.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

### 1. 물품의 흐름

#### (1)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

국제 전자상거래는 스마트폰 등 값싸게 입수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 인터넷 인구의 증가 등에 의하여 확대 경향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제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P 화물<sup>2)</sup>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국제 전자상거래도 가 일층 확대가 예상되며, SP 화물 등에 의하여 수출입 되는 화물의 소량화·개인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세관에서의 대응으로서 한층 더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일본의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성 보고서<sup>3)</sup>에서는 「인터넷 인구의 6%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주요 이유를 보면 국내 전자상거래로 충분하다는 것이나 언어의 장벽, 높은 배송료, 장기간의 배송기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한다면 국제간 전자상거래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EPA 체결 및 FTA 비율의 확대

성장전략 Follow Up<sup>4)</sup>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전개지원을 위한 Rule에 근거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으로서 많은 EPA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EPA 체결이나 FTA 비율<sup>5)</sup>을 확대함으로써 EPA 체결국과의 무역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 수송망 구축

해상화물에서는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벌크선의 대형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또한 국토교통성의 항만 중장기정책<sup>6)</sup>에서 주요 항으로부터의 직항 서비스를 강화함과

2) 「SP 화물」(Small Package 화물의 약어)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송하인)의 집으로부터 수입자(수하인)의 집까지 一貫 輸送을 기본으로 하는 화물이다. 국제익스프레스 화물·국제택배 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형특급택송화물을 말한다. 또한, 세계무역에서 화물의 수송단위가 종래의 컨테이너에서 Small Parcel(소포)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P 화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3) 경제산업성 「2018년도 일본데이터 구동형 사회와 관련한 기반 정비(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

4) 성장전략 Follow-up(2019년 6월 21일 日本閣議決定)

5) 「FTA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무역총액에서 점하는 EPA/FTA 발효 완료·서명 완료 국과의 무역액 비율(2018년 51.6%)

동시에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京浜港·阪神港)<sup>7)</sup> 기능 강화와 국내외로부터 집하하는 대처 등을 통해서 해상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때문에 미래에는 화물선의 기항항만을 포함해서 해상화물의 동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 2. 사람의 흐름

### (1)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증가

일본 정부는 「관광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한 「장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sup>8)</sup>에서 2030년에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6,000만명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 외에 지방공항에서의 Gateway 기능 강화나 LCC 취항 촉진, 크루즈 선편의 가 일층 확충 등 다양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입국자 수가 한층 더 증가함과 동시에 입국자가 이용하는 공항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항만 중장기정책에서도 「동북아시아 크루즈 허브」를 일본에 만들고, 일본열도 전체를 크루즈 아일랜드로 진화시키는 시책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의 「세계인구예측」<sup>9)</sup>에서 세계인구는 현재 77억명에서 2050년에는 97억명으로 26% 증가하고, 특히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나이지리아 등에 특히 인구증가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방일 외국인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2)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 증가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도 근년에는 증가 경향이 있다. 또한,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sup>10)</sup>에서는 일본인의 해외여행하기 쉬운 환경을 구비하여 국제상호교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인 해외여행자수 목표를 2020년에 2,000만명<sup>11)</sup>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인 출입국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돈의 흐름

### (1) 암호자산의 출현

일반적으로 지급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전제되어왔으나, 요즘에는 소위 암호자산<sup>12)</sup>(Crypto-assets)라고 불리워지는 형태의 결제기능을 가지고

6) 국토교통성 「항만의 중장기정책『PORT 2030』」(2018년 7월)

7) 京浜港(동경항/요코하마항), 阪神港(오사카항/고베항)

8) 장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 「장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2016년 3월)

9)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10)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2017년 3월 28일 日本閣議決定)

11) 2019년 실적은 2,008만명에 도달(출전: 일본정부관광국(JNTO))

12) 암호자산(가상통화)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제59호)제2조제5항제1호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돈을 빌리거나 역무제공을 받은 경우에 이것들의 대가로서 변제하기 위하여 불특정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불특정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구입 및 매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규정

있고 디지털정보기술을 활용한 자산이 출현하고 있는바, 세계에서 1,500종류 이상의 암호자산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향후 법정통화 대신에 암호자산에 의한 화물 대금의 지급이 일반화될 경우 암호자산을 어떻게 과세표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또는 범칙조사에서 지급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고하는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Cashless 화 추진

현재 현금처리 cost 삭감에 의한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소비자의 지급 편리성 향상 등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Cashless 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2025년 6월까지 Cashless 결제비율<sup>13)</sup>을 2배 증가하여 4할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sup>14)</sup>로 하고 있다.

이것에 동반하여 예를 들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있어서 관세나 소비세 등 납세에 관해서도 Credit-card와 2차원 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에 의한 납세를 가능하게 하는 등 Cashless 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4. 사회구조의 변화/재해리스크 등

### (1) 총인구 및 노동력 인구의 변화

앞으로 일본의 총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하면 2053년에는 1억명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出生中位推計)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東京都 및 오키나와현을 제외하고 45道府縣에서 총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부터 2035년에 걸쳐서 모든 都道府縣에서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sup>15)</sup>

또한, 동 연구소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동반하여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에는 7,516만명(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율은 59.6%)이었으나, 2040년에는 5,978만명(53.9%)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출생중위추계)되고있다.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육아 지원 충실이나 결혼·출산 희망이 실현 가능한 환경정비 등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고있어<sup>16)</sup> 앞으로 총인구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나 폐지 등의 움직임도 보여 일본 노동력 인구 구성이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총인구 및 노동력 인구의 변화와 함께 각 지역의 경제정세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화물의 수출입에 이용되는 공항과 항만 나아가서 당해 공항과 항만을 왕래하는 외국무역기와 외국무역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3) 2018년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credit카드, debit카드 및 전자머니에 의한 결제액 비율은 24.1%

14) 성장전략 Follow-up(2019년 6월 21일 日本閣議決定)

15)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2017년 추계)

16) 내각부 「2018년도 저출산 상황 및 저출산 대처시책 개황(2019년판 저출산사회대처백서)」(2019년 6월)

## (2) 일하는 방식 개혁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WLB(Work-Life Balance)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Flex-time제 및 Tele-work(재택근무, Satellite-office<sup>17)</sup>근무 등)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될 것 같은 환경정비가 민관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고 불리워지는 Desk-work의 자동화·효율화를 도모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단순 업무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직원들의 활약 장을 그 이외의 업무로 넓히는 등 일하는 방식이 한층 더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재해 리스크 등에 대비

일본은 태풍, 큰비, 홍수, 지진, 화산분화 등에 의한 재해에 취약한 국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 의하면 매그니튜드<sup>18)</sup>7정도 이상의 지진이 앞으로 30년간 70%정도 이상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9)</sup>

아울러 국내외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에 따라 국제물류나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등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감염증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5. 첨단기술의 진전

### (1) AI 등 첨단기술의 활용

정부는 AI, 로봇, Big-data 해석기술, 분산대장기술(Block-chain) 등 첨단기술을 모든 산업이나 사회생활에 도입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양립해 가는 새로운 사회로서 「Society 5.0」<sup>20)</sup>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관에서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의 건전한 발전」, 「안전한 사회」, 그리고 「풍요한 미래」의 실현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 5G 서비스 개시

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성장전략 Follow-up에서 2020년도 말까지 全道府縣에서 5G(제5세대이동통신시스템)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로 거론되고 있어 큰 진전이 예상된다. 또한, 5G의 기술적 특성인 「초고속·다수동시접속·超低遲延」이 실현되면

17) 자택과 본사 중간 터미널 등에 PC나 팩시밀리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

18) Magnitude(M): 광도의 단위,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

19)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주요한 海溝型지진의 평가결과(지진발생확률) 2019년 2월 26일 공표」

20) 「Society 5.0」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가상공간)과 Physical 공간(현실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에 의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양립한다. 인간중심의 사회로서 수렵사회(Society 1.0), 농경사회(Society 2.0), 공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에 계속하여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년 1월 22일 日本閣議決定)에서 제창되었다.

동시에 대량 data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초고해상도의 영상송신에 의해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복수의 지점 간에 동시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30년경에 6G의 도입이 전망되어 민관에서도 6G의 도입을 향한 대처가 행하여지고 있다.

### (3) 무역 분야에 분산대장기술 활용

분산대장기술(Block-chain)은 data의 改竄(개찬:자구를 악용할 목적으로 고치는 것)이 곤란하여 거래 내용의 추적이나 관계자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특징이 있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 항만이나 기업에서 무역 분야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무역 분야에서 당해 기술의 활용이 진전되어 Supply-chain상 기업간 무역절차에 있어서 당해 기술이 활용되어 세관에 동 data가 공유되는 경우 당해 기술은 세관에 매우 유효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 6. 국제치안정세의 변화

### (1) 계속되는 국제테러 위협

공안조사청의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2020년 1월)에 의하면 국제테러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대규모 국제이벤트에 즈음하여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또한 테러계획 적발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테러의 양태로서 사람 살상이나 기물 손괴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행위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 기밀정보 擄取 등을 노린 사이버 테러(사이버 공격)도 있어, 국내외에서 常態화되고 있다고 한다.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관은 앞으로도 테러 정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에 의한 밀수의 교묘화

세관은 북한에 의한 핵실험 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및 북한으로부터 모든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의 수출금지 조치 등을 관세국경선에서 담보한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해상에서 석유제품 등을 밀수하는 등 수법을 교묘화하여 물자·외화의 조달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sup>21)</sup>도 있기 때문에 세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국제범죄조직의 활발화 및 범죄의 교묘화

경찰청 「2019년 경찰백서」에서 약물밀수입사범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약물범죄조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각성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나 일본에 온 외국인에 의한 밀매 경로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21) 공안조사청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2020년 1월)

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온 외국인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은 보다 교묘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감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국적화되고 있고, 폭력단과 연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추가해서 일본의 국제화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동반하여 국제범죄조직의 일본 국내 침입·침투가 한층 더 용이하게 되는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세관의 관세국경선에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으로의 자금 흐름을 끊는 것이 이와 같은 조직의 약체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Money-laundering(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을 대한 대책이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세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연계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국제범죄조직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Ⅲ. 세관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대응

세관은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3가지 사명(「안전·안심한 사회 실현」,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무역 원활화 추진」)을 적절하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Ⅱ.에서 고찰한 환경변화를 직시하면 세관의 3대 사명 그 자체에 변화가 없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세관이 중점을 두었던 업무에 추가하여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에 의하여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래 다양화·복잡화하는 세관 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무역 원활화 추진」,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무역 원활화 추진

현재 재무성 관세국·세관은 무역 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서 Security를 확보하면서 AEO 제도의 추진과 IT화 등을 통해서 통관절차를 한층 더 효율화·신속화해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EPA 교섭 등을 통해서 다각적 자유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여 일본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있다.

Ⅱ.의 환경변화를 근거로 한 대응으로서 다음 사항들이 생각되어진다.

##### (1) 환경변화에 대응한 무역 원활화 확보

무역 원활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예비심사제, AEO제도, 수출입신고관서의 자유화<sup>22)</sup>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해 왔으나, 상기 Ⅱ.의1. 「물품의 흐름」, 2.

22) 「예비심사제」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세관에 예비적 신고를 하고 세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제도,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란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EO업자의 경우 어느 세관에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사람의 흐름」 또는 4. 「사회 구조의 변화/재해 리스크 등」에 언급한 변화가 발생하여도 계속 무역 원활화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책에 대하여 위 II의 5. 「첨단기술의 진전」에서 언급한 기술의 활용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 EPA 세율 적용에 있어서 이용자 편리 향상

아래 2.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1)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수입화물에 EPA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것으로 예상되어 EPA세율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입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리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방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TPP 등을 계기로 EPA 이용을 통해서 대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수출 참가를 촉진하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식품도 그리고 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서비스 등도 적극적으로 해외로 전개하는 「新輸出大國」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3)</sup>

세관에서는 특히, 원산지규칙 등에 관한 식견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EPA 이용촉진(수출자지원)에 공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산업진흥에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 (3) 관광입국에 가 일층 공헌

위 II의 2. 「사람의 흐름」에 있는 바와 같이 방일 외국인여행자수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의 가 일층 원활화로 이어지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관광입국에 가 일층 공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 II의 3. 「돈의 흐름」에 있는 바와 같이 Cashless 화를 위한 환경정비에 진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세관은 관세·소비세 등 합계 약9.1조엔 즉 총국세수입의 약 14.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세입관청으로서 적정하고 공평하게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II.의 환경변화를 근거로 한 대응으로서 다음 사항들이 생각된다.

### (1) EPA에 관계되는 적용세율 확인에 대응

근년 TPP11협정이나 日 EU·EPA<sup>24)</sup>라고 하는 메가 EPA 발효 외에 RCEP<sup>25)</sup>이라고 하는 현재 교섭 중인 메가 EPA도 있어 앞으로 위 II의1. 「물품의 흐름」에 있는

23) 종합적인 TPP 등 관련정책대강(2019년 12월 5일 TPP 등 종합대책본부 결정)

24) 「TPP11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태평양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이고 선진화된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으로서 2018년 12월 30일 발효. 「日 EU·EPA」라고 하는 것은 「경제상의 連携에 관한 일본과 구주연합과의 협정(Japan-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로서 2019년 2월 1일 발효

25) 「RCEP」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휴(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어

바와 같이 새로운 EPA의 체결 및 FTA비율의 확대가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EPA세율 적용이 표준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시 적용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상이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적용세율의 확인에 있어서 수입화물이 상대국 원산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시 심사, 수입통관 후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사후확인 또는 수입자 사업소를 방문해서 행하는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히 이들 업무가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EPA에서는 수출 상대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일본세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 (2) 탈세 대책 및 부정환급 대책의 가 일층 강화

근년 소비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지금의 밀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 인상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徴稅관청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출시 소비세 환급을 악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도 제휴하면서 계속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

세관은 부정약물·총포 등의 밀수 저지 및 일본에서의 테러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 침해 물품을 단속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규제되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도 세관이 관세국경선에서 확인하고 있다. II의 환경변화를 근거로 한 대응으로서 다음 사항들이 생각되어진다.

### (1) 테러대책 및 북한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테러 관련 물자의 유입 저지, 북한제재조치의 관세국경선에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제치안정세 등의 동향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제휴해가면서 的確하게 세관의 역할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2) 밀수수법의 교묘화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응

각성제를 시작으로 하는 부정약물의 경우 2019년 압수량이 3t을 초과하였고, 지적재산 침해 물품도 수입금지건수가 고수준인 상황이다. 위 II의6. 「국제 치안정세의 변화」에 있는 것처럼 밀수수법의 교묘화나 국제범죄조직의 동향을 고려하면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관이 완수해야 할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워싱턴 조약에 해당하는 동식물과 偽造在留카드 밀수입 사범

등 부정약물이나 지적재산 침해물품 이외의 위법물품 적발도 발생하고 있어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수출입에 있어서 단속 강화

부정약물에 추가하여 도난 자동차의 부정 수출 사범이나 목적지를 속여 북한으로 부정 수출하는 사안이 적발되고 있으며, Money-laundering·테러 자금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출 면에서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제휴하면서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IV. 중장기비전 및 시책

지금까지 고찰해 본 세관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세관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르는 대응을 근거로 해서 「무역의 건전한 발전」, 「안전한 사회」, 그리고 「풍요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음과 같이 4가지 Key-word별로 정리했다.

### ● Solution(편리성향상책)

무역관계사업자와 여객 등에게 세관 절차에서의 Compliance와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Multiple-Access(多元連携)

관계기관, 무역관계사업자 등과의 정보 제휴를 확대·강화하고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 강화와 무역 원활화의 양립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Resilience(強靱化)

사회구조의 변화와 재해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세관 절차에서의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세관 행정을 지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Technology & Talent(고도화와 인재 육성)

세관 업무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관 절차에 새로운 편리성을 창조하고 한층 더 효과적·효율적이며 나아가 선진적인 단속 실현 등 업무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첨단기술의 활용과 함께 인재 육성, 업무 자체의 재검토 및 직장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위 4가지의 중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Key-word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아울러, 각종 시책 관련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에 진력할 시책을 단기적 시책으로 하고, 이것보다 장기간(최장 10년정도)에 걸쳐서 진력할 시책을 중장기적 시책으로 한다.

### 1. Solution(편리성 향상책)

무역관계사업자와 여행자 등에게 세관 절차에 있어서 Compliance와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장기 시책)

##### (1) 세관 절차의 가 일층 Digital 화

① 세관 절차는 상업화물 분야에서는 시스템화가 진행되어 관계성청의 절차를 포함해서 One-stop · Once-only가 실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입국시 세관검사체제에서도 E-gate(세관검사장 전자신고 Gate)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종이로 제출하던 휴대폰신고서의 Digital 화가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도 출입국재류관리청 등 관계성청과 필요한 제휴 · 정보공유 강화에 의한 협력을 모색해 가면서 입국여행객과 관련된 세관 절차의 한층 더 Digital 화에 노력한다.

② 현재 서면에 의한 신청 또는 처분통지를 하는 절차(예를 들면 감면세 절차나 입국 별송품 절차)에 대해서 가능한 Digital 화를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검토한다.

③ 또한, 권리자 등에 대한 편리성 향상의 관점에서 지적재산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인정절차에 대해서도 한층 더 Digital 화를 검토한다.

##### (2) 상담 대응 편리성의 가 일층 향상

세관과 이용자의 접점에 있는 세관 상담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가 일층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일, 야간 등에서의 대응을 포함한 日時에 구애되지 않는 상담 Channel로서 자동응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질문상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검토해 나간다.

##### (3)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가 더욱더 진전되고 신속한 거래가 요구되는 SP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의 가 일층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효과적 · 효율적인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층 더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과 신속통관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관검사장에서 화물검사공정의 자동화 등에 의한 검사의 효율화 · 강화, SP화물 등 소량화물에 특화된 신고나 사전 전자정보의 입수 · 활용을 통한 검사

등의 효율화·강화 혹은 체제의 정비도 포함하는 폭넓은 대응책을 검토해 나간다.

### (단기 시책)

#### (1) E-gate 용 앱 개선 및 이용 향상을 위한 周知

이용 시 신고용 앱의 Down-load가 필요하므로 한층 더 周知에 노력함과 동시에 앱을 쓰기에 편리한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앱을 이용할 수 없는 여행자도 도착공항의 세관검사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신고절차를 행한 뒤에 E-gate를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E-gate 대상 공항의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을 외국인에게도 확대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지하여 방일 외국인의 Stress-free한 입국환경 정비에 공헌해 나간다.

#### (2) 납세 Cashless 화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Cashless 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관세와 소비세 등 납세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Credit-card와 2차원 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에 의한 납세를 가능하게 하는 등 Cachless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검토한다.

#### (3) EPA 이용 지원

자기신고제도에서는 수출입자 자신이 원산지증명을 행하기 때문에 EPA세율 적용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연휴협정(EPA) 체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자가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검증에 응하는 사례의 증가도 예상된다. 세관에서는 지금까지 배양한 원산지규칙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력해 온 사전교시에 추가하여 수출입자가 필요로하는 지원을 행함으로써 EPA 이용지원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공헌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요구사항 파악, 적절한 체제의 정비, 정보 발신 및 질문·상담 대응 충실 등에 진력한다.

#### (4) 세관 Home-page 개선

세관 절차 등의 이용자에게 관세율, 통관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세관 Home-page에 대하여 한층 더 이용자에게 보기 쉽고, 필요한 정보가 용이하게 검색·입수할 수 있도록 당해 Home-page의 콘텐츠와 기능 등을 개선한다.

## 2. Multiple-Access(多元連携)

관계기관, 무역 관계 사업자 등과의 정보 제휴를 확대·강화하고 관세국경선에서의 단속 강화와 무역 원활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 시책)****(1) 관계기관과 가 일층 제휴**

① 위 1. Solution(편리성 향상책)에 게재된 시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테러관련 물자와 부정 수출입 단속 강화, 탈세 대책과 소비세 부정 환급대책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出入國在留管理廳, 경찰, 마약단속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하고, 정보수집 강화에 노력한다. 또한, 지적재산 침해물품 단속 및 타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규제된 화물의 확인에서도 계속 당해 법령을 소관하는 관계성청과 제휴해서 대응해 나간다.

② E-gate의 가 일층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등 관계성청과의 정보 제휴를 도모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고려하면서 정보공유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진력이 가능한 E-gate용 앱 개선 및 이용 향상을 위한 周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해 나간다. (1. Solution (편리성 향상책)의 단기 시책 (1) 참조)

③ 새로운 조류로서, 예를 들면 밀수를 포함한 약물범죄에 대하여 소위 Dark-web이라고 불리는 사이트가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세관에서도 경찰, 마약단속부 등 관계성청과 교묘화하는 밀수수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하는 등 제휴해서 대응해 나간다.

④ 근년 각성제 등의 다량밀수 사안에 해상 컨테이너 화물이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대형 X선검사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해상화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편 원활한 통관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만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성 등과 제휴를 강화하고 각 항만의 개발·발전상황에 대응한 대형 X선검사장치의 선진적인 활용방법 등을 검토해 나간다.

**(2) 사업자와 가 일층 제휴**

① 안전·안심한 사회 실현 및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아래 시책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㉗ AEO사업자에 의한 법령준수와 화물 Security 확보와 관계되는 자율적인 대처를 존중하면서 AEO제도의 편리성 향상 및 운용의 투명화를 추진함으로써 AEO제도의 이용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해외의 대처사례 등도 고려하여 AEO사업자와의 Partnership을 강화해 나간다.

㉘ 보세분야에 있어서 자율관리방식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的確한 단속을 하는 것 등이 중요하고, 보세업무 관계자 등과 무역관계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 Compliance 상황 파악 등에 노력해 나간다.

㉔ 또한, 운송업·여행업 등 각종 업계단체와 세관은 일정한 Partnership을 구축해 왔으나 이들 각종 업계단체와 새롭게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Partnership을 강화해 나간다.

㉕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다양한 업태 중에서 운송업자나 통관업자와는 Partnership이 체결되어 있으나, 장래에는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관점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와도 Partnership을 체결함으로써 사전 정보를 한층 더 충실하게 하여 통관이 보다 원활하게 되도록 검토한다.

### (3) 대학 등과 제휴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는 지금까지도 대학위탁연수제도 등을 통한 직원파견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장래에는 예를 들면, 합동연구를 통해서 첨단기술 활용책을 검토해 나간다.

### (4) 외국세관 등과의 가 일층 제휴

① 국제무역에서 합법적인 사람, 물품, 돈의 흐름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위 (1)부터 (3)까지의 Partnership 이외에 외국세관이나 관계단속기관 등과의 협력 심화를 도모한다.

② 또한, 諸외국이나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등 국제적 단체에서는 첨단기술의 활용 등 세관 미래를 향한 국제협력이나 시책의 검토도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대하여 모색해 나간다.

③ 특히, AI를 시작으로 하는 첨단기술의 진전이나 활용에 있어서 직면하는 과제(예를 들면, 암호자산에 대응하는 과제, 학습 Data의 확보나 첨단기술에 관련되는 인재 육성의 이상적인 상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본 측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대국의 경험과 과제 극복을 향한 대처와 관련된 정보 입수에 노력한다.

### (단기 시책)

#### (1) 정보수집 강화

세관에서는 화물이나 여객에 관한 사전 정보를 입수·활용함과 동시에 테러대책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속하고 적절한 입수·활용에 노력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취득정보 확충에 진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 여객에 관한 사전 정보 입수에 대하여 관계국 등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박 여객에 관한 사전 정보에 대하여 가 일층 정보의 충실화가 기대되고 있고, WCO에서의 크루즈 선 단속에 관련된 논의에 참여해 나간다.

**(2) 정보수집의 가일층 효율화**

인터넷상 정보를 자동 수집하기 위한 Web-crawling 기술<sup>26)</sup>의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의 가일층 효율화를 위하여 정보공유에 있어서 관계성청과의 제휴 강화(정보공유 방법 개선이나 새로운 정보의 공유)도 도모해 나간다.

**(3)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환경정비**

세관당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의나 의견교환, 기술협력 등을 하고 있다.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회의나 의견교환 등은 시간적·예산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갖추으로써 가일층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한다.

**3. Resilience(强靱化)**

사회구조의 변화나 재해 Risk 등에 대비하여 세관 절차에서의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세관 행정을 지속·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 시책)****(1) 재해 등 비상시에 강한 시스템 검토**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기때문에 끊임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거의 모든 수출신고가 시스템 처리되고 있고, 재해 발생 시 통관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이미 강구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술 동향도 주시하면서 보다 강인(强靱)화를 향해 끊임없는 검토를 한다.

**(2) 해안선 등의 감시단속에서 첨단기술 활용**

앞으로 총인구 및 노동력 인구의 변화에 따라 지방 도시에서의 지역 경제가 변동한 경우,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공항이나 항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안선 등에서의 감시단속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무인항공기(소위 「드론」 등)라고 하는 첨단기술이나 위성 정보에 대하여 그 기술 진전상황이나 국내외 관계기관에서의 활용상황 등에 주시해 가면서 이들 기술을 활용한 감시단속의 고도화·효율화에 대하여 검토해 나간다.

26) 「Web-crawling」이란 검색엔진에서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검색대상으로 복제·보존하는 기술을 말함

**(3) 심사·검사의 이상적인 상태 검토**

수출입신고 동향의 큰 변화나 재해로 인한 물류에 영향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관에 의한 통일적인 운용 및 적정하고 원활한 통관을 확보해 나간다고 하는 점도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주시하면서 그 정책에 대하여 계속 검토를 한다.

**(단기 시책)****(1) 被災 등에 대비**

① 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최신 被災정보, 기타 예측 불가 사태 등의 정보에 대하여 AI를 사용한 정보수집서비스에 의해 실시간(realtime)으로 수집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당해 서비스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관세국·세관에서는 과거 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被災 등에서의 대응에 대하여 경험 등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미 각 세관에서도 업무 계속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책정하고 있으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증의 감염 확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각 세관의 BCP를 적시에 갱신해 나간다.

③ 被災로 인한 시스템 다운에 대비하여 Manual 대응에 마련되어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또한, 각 세관에서 보존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일부 전자적으로 보존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자화를 도모하여 被災에 따르는 散逸(흩어져 없어짐)위험을 저하한다.

**(2)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환경정비**

지금까지도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응하기 위하여 Flex-time 제나 Tele-work 등을 도입해 왔으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경험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재해 시 등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Remote-access가 가능한 기능(신 클라이언트)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직원이 자택 단말기에서 세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당해 기능의 개선도 도모하고, 접속 가능한 단말기 수를 늘리는 등 Tele-work 환경을 강화한다. 또한, 전자적으로 보존되고 있지 않은 서류를 전자화하고, 자택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를 쉽게 하는 등 Tele-work에서의 업무효율 향상에 노력한다.

**4. Technology & Talent (고도화 및 인재 육성)**

세관 업무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관 절차에서 새로운 편리성을 창조하고 가 일층 효과적·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단속 실현 등 업무의 고도화를 목

표로 한다. 또한, 첨단기술 활용과 함께 인재 육성, 업무 자체의 재검토 및 직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중장기 시책)

#### (1) 첨단기술의 적극적 도입·활용

① 관세국·세관에서 각종 첨단기술 도입을 향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를 기술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재검토도 포함한 업무 최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최적화와 맞추어서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르는 수출입신고의 가 일층 증가, 정부방침에 근거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일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세관의 인적 자원과 예산의 재배분도 검토해 나간다.

② AI는 화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대량·고속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업무의 고도화·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기대되므로, 아래(단기 시책 (1) ① 및 ②) 대처뿐만 아니라,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광범위하게 모색해 나간다.

③ WCO 보고서<sup>27)</sup>에서 아래와 같이 각종 첨단기술의 세관 업무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앞으로 WCO에서의 첨단기술에 대한 조사나 諸외국세관에서의 활용 또는 실증실험 등의 대처상황을 주시하면서 일본세관 업무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를 계속한다.

#### ㉞ 분산대장기술(Block-chain)

블록체인을 세관 절차에 활용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의 확보, 무역 원활화, 부정 적발 등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한편, 당해 기술에 의하여 어디까지 위법 거래나 탈세 등을 막을 수 있을 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활용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정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정보가 사실로 인식되어 버렸다고 하는 결점도 지적되고 있다.

#### ㉟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국제물류에 있어서 IoT는 예를 들면, 물류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송중인 상품 개수나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나 무역관계사업자가 상품의 소재를 추적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

IoT네트워크에 세관이 참가함으로써 세관이 Supply-chain 상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예를 들면, 세관에서 화물의 과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27) WCO 「Study Report on Disruptive Technologies」 (2019년 6월)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IoT에 의하여 수집·축적된 정보를 Big-data로서 해석에 활용하는 것도 생각되어진다.

#### ㉔ 드론

미국이나 두바이 세관에서는 이미 조사나 감시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국경이나 해상 감시 등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또한, 諸외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밀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밀수방지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㉕ 가상현실, 확장현실 및 복합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또는 복합현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어떤 세관 직원이 행한 휴대품이나 화물검사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컨테이너나 선박 등을 검사하는 환경을 투영하여 세관직원 훈련에 이용하는 것 등이 생각되어진다.

④ 모조품대책으로서 민간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상표의 진위판정을 하는 것도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간기업에서의 첨단기술의 활용 대처를 주시하면서 세관의 지적재산 침해물품 단속 등에 유익한 AI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또한, IoT를 체현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스마트폰 등으로부터 자동차 등 복수의 교통기관(렌트카, 철도, 버스, 항공기 등)의 예약과 결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MaaS(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하는 서비스<sup>28)</sup>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래 여객이나 화물과 관련된 세관절차가 이와 같은 서비스에 뒤섞여서 사람·물품의 이동에 부수하는 정보가 민관에서 공유된다면 한층 더 원활하게 이동·운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동향에도 주시해 나간다.

⑤ 앞으로 AI 등 첨단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업무효율화나 직원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현행 업무를 어디까지 사람이 떠맡고, 어느 곳을 기술이 떠맡게 할까, 나아가서 어디를 Outsourcing 할까라고 하는 관점까지도 검토를 해 나간다.

또한, AI 활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의존한다든가 악용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조작한다는가 하지 않는 것, 개인 행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의 자유, 존엄, 평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 등 AI를 적정하게 이용한 뒤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sup>29)</sup>으로서 정해져 있다.

28)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에서 민간독자 또는 민관이 제휴해서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제 공범위는 도시내, 도시간 또는 국제간 수송 등 다양함

29) 종합 Innovation전략추진회의 결정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2019년 3월 29일)

국가나 자치체를 시작으로 하는 일본사회전체 나아가서는 다국간체제에 관한 원칙으로 7개 항목 (㉔인간

세관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이것들을 충분히 유의해 나간다.

## (2) 인프라 정비

① 첨단기술 활용 시 Data-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으로 서버를 조달하는 경우 코스트면에서 과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 운영 부하의 저감이나 비용 삭감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 전체에서 다방면에 걸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Digital Government 실행계획」<sup>30)</sup>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첨단기술 활용 검토와 병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② 일부 관서에서는 X선 CT Scan 검사장치<sup>31)</sup>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첨단기술을 사용한 단속·검사기기의 충실함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기의 일층 유효한 활용과 병행해서 각국 세관당국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첨단기술을 사용한 기기의 도입·활용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 검토를 시행해 나간다.

## (3) 업무개혁(BPR)<sup>32)</sup> 검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동반하여 업무를 기술적으로 바꿔놓는 것뿐만 아니라 현상 업무 Flow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나가서 업무 최적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RPA 등 첨단기술 도입이나 업무 시스템화에 처해서는 업무 Flow를 분해해서 뽑아 쓸 필요가 있고, 부차적인 효과로서 업무의 가시화가 도모된다. 이를 위해 업무를 첨단기술 등에 맞게 바꿔놓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업무 Flow의 재검토를 한다.

## (4) AI나 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원

장래에 AI가 일본 세관 업무 관련 시스템에 실제로 장치되면 당해 기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 세관에 시스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 세관의 가 일층 효율화 및 편리성 향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AI의 이용·활용을 위해서는 AI를 자유재로 다룰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나간다.

중심의 원칙, ②교육·Literacy 원칙, ③프라이버시 확보 원칙, ④Security 확보 원칙, ⑤공정경쟁 확보 원칙, ⑥공평성, 설명책임 및 투명성 원칙, ⑦Innovation 원칙)이 게재되어 있다.

30) 「Digital Government 실행계획」(2019년 12월 20일 日本閣議決定)

31) 「X선 CT Scan 검사장치」라고 하는 것은 CT기술(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에 의해 수방향으로부터의 투과화상과 단면화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기

32) 「BPR」이라고 하는 것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어로서 업무 Flow를 분해, 각 업무 프로세스의 필요여부 등을 재검증함으로써 업무 Flow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한 재검토 기법

**(단기 시책)****(1) 첨단기술의 적극적 도입·이용·활용****① Big-data의 AI 해석**

세관에서는 과거 수출입신고 등에 대해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Big-data를 AI에 학습·분석시켜서 통관심사 지원이나 사후 조사에서의 조사대상선정 지원에 시험적으로 활용을 개시한다.

**② AI에 의한 X선 검사 화상심사 지원**

AI에 화물의 X선 화상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시켜서 X선 검사 화상심사를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 현장에서의 본격적인 활용을 향해 학습을 계속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업무의 고도화·효율화 등을 도모한다.

**③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는 데이터의 입력, 轉載<sup>33)</sup>작업 등 정형적이며 반복성이 있는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당해 업무의 자동화·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대됨에 따라 전국 세관에 RPA를 도입함과 동시에 대상 업무의 확대를 도모한다.

**④ NQR 장치(각성제 은닉 탐지장치)<sup>34)</sup>**

부정약물 적발실적에서는 각성제가 입국여객의 체내 또는 신변에 은닉된 사례도 다수 있어, 이러한 은닉에 대응하기 위하여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각성제를 탐지하는 검사기기의 실용화를 향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바, 조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업무 Digital 화**

① 첨단기술을 활용해 나가는 환경정비로서 가능한 업무 Digital 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우편물에 관해서는 사전 전자정보의 입수·활용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대상국·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여객의 휴대품신고에 대해서도 E-gate 활용함으로써 Digital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첨단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업무의 Digital 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것들의 데이터 활용을 검토해 나간다.

② 또한, 외부 전문인재의 고용이나 민간기술·서비스 이용 등의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세관 관서별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사례도 예상되기 때문에 세관 스스로 발의에 의한 민간기술·서비스와의 융합이나 customize도 고려해서 체제 정비를 실시

33) 「轉載」란 이미 다른데에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는다는 의미

34) 「NQR(Nuclear Quadrupole Resonance 核四極共鳴)장치」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파를 쬐서 공명·반사한 전파를 측정하는 장치

시해 나간다.

③ AI 등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Data-science 분야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동시에 업무상 AI 등 첨단기술이나 Data-science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직원에게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해 나간다. 또한, 병행하여 첨단기술과 관계된 지식에 대하여 소양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나감과 동시에 첨단기술 도입이나 업무의 시스템화에 처하여 업무와 시스템과의 중개역할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

## V. 결론: 日本의 미래를 위하여

(1) 국제무역을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행정의 중장기 비전으로서 「스마트 세관구상 2020」을 정리하였다.

현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관세국·세관은 구원물자나 Life-line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의 우선적 통관에 추가해서 수출입자에게 편리성이 높은 세관 관서에서의 수출입신고, 원본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전자적 기록으로 제출, 날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에 대한 날인 생략 등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세관의 업무 계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도 수시로 재검토를 해 온 BCP에 추가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도 신속하게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감염증 유행은 세계전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행동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염증 유행이 종식한 후 물품, 사람,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고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으로는 대면 의견교환이 중심이던 세관 상담 등의 업무방법, 일하기 용이한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도입해 온 Flex-time제나 Tele-work 등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재고하는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의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한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의 고도화·효율화, 가 일층 편리성 향상에 대하여 진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관세국·세관은 국민, 납세자, 나아가 미래세대의 관점에 서서 끊임없는 검토를 해 나간다.

(2) 또한, 장래에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세관 업무가 고도화·효율화해 나가는 가운데 직원에 의한 「現物 체크 업무」(화물의 현물확인을 요하는 업무)나 「사후 체크 업무」(무역관계사업자에게 현장조사를 행하는 업무) 등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지

만, 첨단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Work-Life Balance도 고려한 업무운영방법의 기획·입안이나 첨단기술활용의 적절한 계획·유지·관리가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세관업무의 고도화·효율화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그와 같은 업무에 주력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검토해 나간다.

(3) 나아가, 장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관세국·세관 직원 각자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개선을 생각해 내며, 미래상에 대하여 생각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세관구상 2020」에 게재된 각종 시책에 진력할 때, 아래의 조직적인 마인드 “3가지 I”를 가지고 진력해 나간다.

#### ① Innovative(혁신성)

모든 직원이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사용능력을 가지고 데이터나 정보(Intelligence)의 활용에 창의연구를 발휘함으로써 AI 등 첨단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업무의 고도화·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직원 각자가 항상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업무에 진력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② Inclusive(포괄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나 성별을 묻지 않고 직원 각자가 「人間力」을 향상시키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수출입자 등 무역관계사업자외에 다양한 주체와 협동해서 여러 가지 과제해결에 진력한다.

#### ③ International(국제성)

세관은 외국과 현관 입구가 되는 기관이므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에 추가하여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피거나 기술협력에 의한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세계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허심탄회하게 배워서 세계 최첨단의 세관을 목표로 한다.

(4) 이상, 스마트 세관 구상 실현을 향해 각종 시책에 착실하게 진력해서 필요한 운용면·제도면에서의 재검토도 시행해 나간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안심에 배려하면서 물품, 사람, 돈의 흐름을 한층 더 신속화하여 Stress-free한 상태로 갈수 있다면 새로운 소재나 제품 등 다양한 물품이, 그리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문화의 다양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폭넓고 깊게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가치관이 창조되어 활력있는 경제와 다양성을 보유하는 풍요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도 생각한다.

우리들 관세국·세관은 한층 더 안전하고 풍요한 사회를 실현시켜 국민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